



전주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 성금 250만원 기탁

전주지역의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3일 전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5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6명을 포함한 192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황등농협, '최사식조합장' 우수조합장 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지난 3일 황등농협 최사식 조합장을 '우수조합장'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최 조합장은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벼 생산 작목반을 조직해 생산 매뉴얼 제작 보급, 벼품질 순도검사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가격지지에 힘써 왔으며, <신화미인>, <보람찬> 등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왔다. 고품질 다수확 품종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간편식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햇반'용 쌀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확감에서 최 조합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업인 실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체육부 학생들의 혈액 나눔

전주대 체육부, 코로나19 극복 '자발적 단체 헌혈 행사'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체육부는 지난 3일 제2캠퍼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밀집 시설 이용을 꺼리면서 헌혈자가 급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혈액원 관계자는 "권장 혈액보유량은 5일분이지만, 최근 혈액수급이 어려워져 2일에서 3일분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대 축구부, 레슬링부, 씨름부 등 소속 체육부 학생 1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이는 전라북도혈액원 지원으로 하루에 걸쳐 헌혈운동이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축구부 진세화 학생(1학년)은 "사람들이 접촉을 줄이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홍성덕 학생취업처장은 "체육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단체 헌혈 행사를 준비했다"며, "사회적으로 혼란



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대학 최초로 진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 화해농가 지원 활동, 대구지역 성금, 교직원 인건 상가 이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제일로타리클럽, '따뜻한 이웃돕기 실천'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유희광)은 지난 3일 진북동(동장 최영실)과내 저소득아동 7 가구와 관내 그룹 홈 아동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쿠폰(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전주제일로타리클럽은 평소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과 상품을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 해 왔다. /김윤상 기자



호원대, 열감지 카메라 설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기숙사 5개관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3일 호원대에 따르면 교내 기숙사 5개관(반계관,다산관,연암관,난설현관,오류관) 출입구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기숙사 및 학교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아울러,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과 각 학부(과)에 비접촉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전체 교직원들과 관련자들의 체온을 측정해 발열체크 일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썬더테크놀로지, 코로나19 성금 1000만원 쾌척

전주지역의 음향기기 제조업체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지난 3일 (주)썬더테크놀로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에 기탁했다. 2004년 설립된 (주)썬더테크놀로지는 음향기술과 인클로저(enclosure) 설계기술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음향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사랑'을 통해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과 수급자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관용 (주)썬더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유창희 '전주사랑'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주신 (주)썬더테크놀로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후원의 손길이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함께 나눔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6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3-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경찰, 사마터널 사고피해 유족 위로

남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2월 17일 남원에서 발생한 사마터널 화재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 및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심리적·경제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경찰은 전북청 소속 위기개입상담관을 투입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겪은 유족 및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대한적십자사에 기탁된 기부금(溫터하기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및 유족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춘향로타리클럽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체 사랑의 집수리 추진 및 60만원 상당의 의로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유족 A씨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 경찰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 마음을 표시했으며, 함현배 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원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아픔이 조금씩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황토현농협, 조합원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전달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은 지난 3월 31일부터 3일간 본점 및 지점에서 '2020년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황토현농협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어려움에 대한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조합원 자녀 대학생 24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장학금 2,400만원을 전달했다. 김재기 조합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다"며 격려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